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자각과 공성은

겨울의 모습처럼 떼어낼 수 없나니

어떤 것도 생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느니라

마음의 텅 빈 성품은 무가력한 상태가 아니고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지 기능, 우리가 자각 혹은 깨달은 마음이라 부르는 자생적인 명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양면을 보면 공성과 자각은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마치 겨울과 그 겨울에 비치는 물체 같은 것이지요.

생각들은 공성 안에서 형태를 취했다가 거기에 용해됩니다. 마치 얼굴이 거울에 반사 되었다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얼굴이 비치지 않는다고 해서 얼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거울 자체가 변하는 것도 아니지요.

당신이 수행의 길을 나서기 전 아마도 당신은 무명에 이끌려 윤회계의 욕계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행의 길에 들어서면, '무지와 지혜'가 섞여 있는 상태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길의 끝에는 깨침의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남아 있지 않고 오직 자각만이 남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약간의 변화를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본성 자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발을 내디뎠다고 해서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공극에 도달했다고 해서 증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정전 60주년 · 전통문화 홍보 · 자비실천

한국불교 세계화 위해 조계종 '젠 걸음'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7~9월동안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젠 걸음'을 이어간다.

조계종 한반도평화대회 수석부위원장인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평화대회 상임운영위원장인 범야사 주지 수불 스님은 7월 27일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비 공원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에 한국 민간대표로 참석했다.

지원 스님과 수불 스님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공식 초청을 받아 24일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한국 측에서는 김정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바마 대통령과 헤이글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미국 공식 추모행사로 한국 스님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초청으로 조계종이 정전 60주년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기념행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차주 상보)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해외 방문도 이어진다. 조계종 총무원

은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호주 시드니 일대를 방문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수불 스님

정전 60주년 추모 위해 방미

총무원 8월 23~30일 호주 방문

사찰음식·템플스테이 등 홍보

호주불교 포교 현장 견학도

동행, 아프리카 학교 기공과 함께

9월 6~15일 나눔 투어 진행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은 제33대 총무원 집행부의 중장기 4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2010, 2011년에는 미국과 프랑스를 찾은 바 있다.

이번 호주 방문에서는 주요 행사로는 템플스테이 홍보 △사찰음식 만찬 △영화 '길 위에서' 상영 △호주불교연합회 주요 인사 만남 및 불교 교육 현장 견학 △이웃 종교 시설 방문 △현지 불자들과 범회 △UN 참전용사 위로 등이 진행된다.

또한 호주 붓다넷 창립자이자 만해대상 수상자인 백아와로 스님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으며, 호주 다문화 장관과도 면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계종은 "한국불교 세계화" 4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불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호주를 올해 집중 행사 지역으로 선정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뉴욕과 파리에 이은 해외 홍보 연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에는 한국불교 첫 아프리카 학교가 기공식에 들어간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은 9월 9일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경제수도 다르에스살람 외곽지역의 학교건립부지에서 학교 기공식을 개최한다.

아름다운동행의 아프리카 학교 건립 프로젝트는 오랜 식민통치와 기아, 부족 간 분쟁, 전염병, 높은 문맹률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에 교육·문화·복지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 나아가 아프리카인들 스스로 척박한 환경을 개척하며 빈곤의 고리를 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와 함께 동행은 기공식과 함께 9월 6~15일 7박 10일간의 나눔투어를 진행한다. 나눔투어단은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립 기공식, 지역주민을 위한 우물파주기, 슬럼가 학교방문 등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이며,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인근지역 탐방, 국립박물관 견학, 나이바샤호수 및 마사이라 국립공원 사파리 등 투어도 함께 진행된다.

나눔투어는 8월5일까지 모집하며 참가비는 항공, 숙박 등 경비를 포함한 599만원이다. 여권사본(여권만료일 6개월 이상)과 신청서, 신청금 100만원을 제출하면 된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제자원봉사, 연등회 격 높였다

연등회 활동보고서 발간 참가자 90% 이상 '만족'

내외국인 64명 전 과정 참여 많은 사람·등 행렬 관심 높아 방문객들 만족도 역시 '상승'

"연등회 자원 봉사자를 한 것은 제 삶의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내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알게 했습니다." (연등회 국제자원봉사 참가자 라노 리에바(카자흐스탄)의 참가 후기)

올해 첫 시행된 연등회 국제자원봉사에 참가한 내외국인 활동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가 최근 발간한 <2013 연등회 국제자원봉사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집계됐다. 실제 참가 활동가 중 한국인 91%, 외국인 96%의 인원이 전반적 만족도 부문에 '매우 만족'과 '만족'을 선택했다. 프로그램 별로는 템플스테이와 연등회 현장 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연등회 국제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시행된 것으로 총 103명이 지원했으며, 내국인 33명, 외국인 31명 등 총 64명이 전 과정에 참여해 활동했다.

한국과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연등회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높은 호응을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행사 주체로 연등회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가 활동가들은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와 교류 △불교를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한국 대표 축제의 일원으로 참여 등을 매력 요인으로 꼽았다.

프로그램 진행을 주도한 하영태 대한불교청년회 연수국장은 "처음 시행됐지만 중도 포기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참가율이 좋았다"며 "대부분의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이 외국인들을 둘러러 취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등회 국제자원봉사는 그들이 행사 주체로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 호응도가 높았다. 추후 인원 확대와 참가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희 연등회보존회 팀장은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종교와 인종을 떠나 연등회 자원봉사를 통해 하나가 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연등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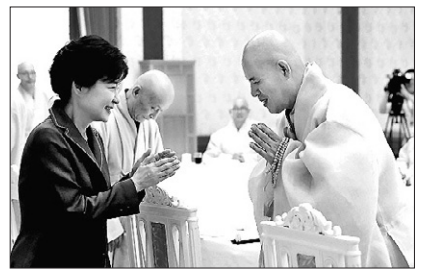
이와 함께 연등회 전반의 모니터링 결과도 함께 집계됐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국인 85%, 외국인 100%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했다.

특히 연등행렬과 체험프로그램, 다양한 참가 인원들에 대해 방문객들이 높은 호응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등회 보존회는 "연등회 방문객들이 축제의 콘텐츠와 사람들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분위기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세세한 측면에서의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 축제 공간의 쾌적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올해 첫 시행된 연등회 국제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진은 자원봉사 연수 교육 모습.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불교 지도자 오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과 인사하고 있다.

불교 지도자 청와대 오찬

박 대통령 25일 협력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7월 25일 낮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국민행복과 문화융성 등 국정과제 구현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과 협력을 당부했다.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은 지난 19일 기독교에 이어 두 번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회장 정사 등 불교 주요종단 총무원장과 조계종 19개 교구본사 주지 등 28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 불교신자 모임인 청불회(靑佛會)의 회장인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류정아 관광진흥비서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이 불교계 지도자를 초청,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신종일 기자

불이성 법륜사 일요법회

불이성 법륜사는 태고종 창종주인 대륜스님께서 1946년 금강산 유점사 서울 포교당으로 창건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스님께서는 포교의 일번지를 주창하며 당대의 훌륭한 법사와 포교사를 초빙하여 1950년대 불교계 최초로 일요법회를 개설하였습니다.

덕암스님 당시까지 이어 오던 일요법회가 지금은 맥이 끊어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소납이 2012년 주지로 부임하며 첫 번째 발원한 것이 일요법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이제 법륜사 일요법회가 다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법륜사로 오십시오.

법륜사 '일요법회'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매주 주제별로 법석을 여는 일요법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법 * 첫째주 : 명상기도 법회
- 회 * 둘째주 : 사경기도 법회
- 안 * 셋째주 : 대다라니기도 법회
- 내 * 넷째주 : 칠수경 강의

- ◆ 대 상 : 초, 중, 고, 대, 일반인
- ◆ 시작일 : 9월 첫째주 일요일
-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 장 소 : 법륜사 3층 대불보전
- ◆ 문 의 : 불이성 법륜사 종무소 (02-732-2710, 3920)

불이성 법륜사 주지 도학 혜일